민주 "양궁처럼 공정사다리 만들겠다"…MZ세대 구애 총력

'청년미래연석회의 3기' 출범식
젊은층 못 잡으면 대선 어렵다
취업난·주거난 등 정책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젊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당 정청을 중심으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등 돌린 젊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3기' 출범식을 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6월 당정청 협의로 만들어진 청년정책 총괄 기구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 이슈부터 화두에 올렸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잡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송영길 대표는 출범식에서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고 불릴 정도의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회 전반을 청년 친화적 구조로 바꾸는 고민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MZ세대(20·30대)의, MZ세대에 의한, MZ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림픽 양궁 대표팀을 거론하며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공정 사다리가 청년정책에 확고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년에 추진할 청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정의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이 혹여 막히면 뚫는 역할, 엉키면 푸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권주자들도 영상 축사로 힘을 실었다. 이재명 후보는 "캠프에서 이런저런 청년정책 소개안을 많이 가져왔지만, 확 바꾸자고 했다"며 "더 청년들 마음에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청년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취업 준비생은 역대 최대치"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결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후보는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함께 가자. 저도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1971년생 만 50세"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제 도전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이지만 정치는 꿈꾸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변화를 주도하는 자가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자취방에서 한 청년이 100여 장이 넘는 이력서를 남기고 고독사한 사연에 참으로 먹먹했다"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세균 "'경부축 대응' 목포~충청~강릉 강호축 고속철 추진"

도의회서 전남권 의대 신설 등 전남 발전 10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고속철도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 전남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포에서 출발해 충청을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강호축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 경부축에 대응한 X자형 강호축 건설을 통해 전남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민선 7기 전남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도 조기 추진하겠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허가 통합기구를 설치하고, 목포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남은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라며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 빛가람동에 건립 중인 한국에너지공대와 관련해 "한전공대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캠퍼스 조성 중인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전남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 육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지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및 남해안관광벨트 구축 등을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낙연·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서는 "말로만 중단을 선언할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클린 검증단'을 당내 설치해 네거티브를 방지하고 명확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추미애 "대선 박빙…열린민주당과 통합해야"

당 지도부에 공개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9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공개 제안했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정책연대부터 시작해도 좋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추 후보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대연합이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최재형까지 입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위 제3지대 소멸은 예정된 수순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박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후보만 된다면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과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본선은 그리 만만치 않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동지들"이라며 "특히 제게는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검찰개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추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열린민주당과 상의한 적은 없다"며 "사전 교감이라기보다 이심전심이란 표현이 맞겠다"라고 말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선 "(열린민주당) 간판을 내리라는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흡수 합당이 아닌 당대 당 통합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당 후보들 네거티브 중단, 전폭적 환영"

"민주당 변화 국민께 보여주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관련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후보들이 어제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대의에 동참했다. 감사드린다"며 "이런 모습이야말로 민주당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며, 선 넘는 네거티브를 해서 정권을 잡고 보자는 선거 전문 조직이 아니라, 민생·정책·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관계에서도 네거티브에는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당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요 후보들과 계속 만남을 통해 당의 방침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당 경선이 과열 양상이라 당원과 국민께 우려를 샀는데 다행히 후보들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당은 원팀 기조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호남지역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5명 모집…13일까지 접수

국민의힘이 호남지역 사무처 당직자를 공개 채용한다. 국민의힘은 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할 호남지역의 인재를 영입하고자 광주시당·전남도당·전북도당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광주시당 1명, 전남·전북도당 2명씩 총 5명이다. 1년 계약직 형태로 근무 실적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 지원자는 모집지역 시·도에 주소, 출신학교, 경력 등 연고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정당·공공단체·언론사·시민단체·기업 근무경력 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 세부 채용정보는 국민의힘 홈페이지(www.peoplepowerparty.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 이력서와 함께 '제안서'를 필수 제출토록 했다. 내년에 잇따라 치러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지지세를 확산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제안서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관계자는 "선발될 인재들은 국민의힘과 함께 호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동행할 호남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융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융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융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